

# 튀는 응원...월드컵이 즐겁다



poné a Messi !!  
(por favor)

전 세계가 독일 월드컵으로 들쭉거리고 있다. 본선에 진출한 32개국 선수들의 축구경기 만큼이나 경기장 밖의 응원 대결도 볼거리다.

외관상으로 가장 뚜렷이 구별되는 건 네덜란드의 오렌지색 응원단. 국가대표팀 유니폼과 같은 색깔 옷을 맞춰 입고 스타디움을 메운다.

이번 월드컵 인기 아이템은 오렌지색 플라스틱 헬멧.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의 네덜란드 침략을 풍자하려는 것. 하지만 독일인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네덜란드 서포터스 연합은 경기장 내 헬멧 착용을 금지했다.

요란하기로 따지면 이탈리아도 못지않다. 대형 현수막·조명탄·연막탄 등으로 무장한 시각적 응원은 1970년대 이탈리아 프로리그에서 싹텄다.

응원단이 다 함께 웅장한 노래를 부르는 전통은 축구 종가 잉글랜드가 원조. 박지성의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챔피언을 따르라(stand up for the champion)' 같은 노래는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각기 다른 가사로 불리고 있다.

서포터즈들의 이름도 다양하다. 한국 응원단이 '붉은 악마'라면 이탈리아는 티포시 아주리(tifosi azzurri, 푸른 응원단)로 불린다. 전통의 격자무늬(tartan) 유니폼을 입는 스코틀랜드 응원단의 애칭은 '타탄 군대(tartan army)'. 일본 응원단은 대표팀 별칭 그대로 '올트라 닛폰'이다.

## 바람둥이 남편 덕에 6억 횡재한 아내 이야기!

이탈리아 월드컵 응원단 '붉은 악마'의 열광적인 응원으로 인해 월드컵 기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의 상당 부분이 '붉은 악마'에 돌아갔다. 이 수익의 일부는 '붉은 악마'의 후원금으로 사용되며, 일부는 '붉은 악마'의 직원들에게 지급된다. '붉은 악마'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6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수익의 일부는 '붉은 악마'의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붉은 악마'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6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수익의 일부는 '붉은 악마'의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문의: 060-700-3658

## 마시면 쏘~옥 빠지는 프랑스 커피

프랑스 커피의 맛을 느껴보세요. 프랑스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입니다. 프랑스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입니다. 프랑스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입니다.

문의: 02-335-6801